청산가는 길, 고운 꽃가마 타고 가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낙화 中>－

황영제(huangyingje@gmail.com)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세계로 돌아갈 때 두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극잔한 예를 갖추고 고인의 길을 배웅했다고 한다. 떠나는 이를 위한 소리, 고운 가마, 그리고 돌아가는 길 외롭지 않게 꼭두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죽음을 기리기 위한 우리의 죽음 문화. 원래 우리의 것이 잊혀 낯설게만 느껴지니 애석할 따름이다. 필자는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다. 흰 삼배에 쌓여 관에 고이 눕혀 있는 모습과 끊이지 않는 곡소리. 관을 붙잡고 주저앉은 사람들의 모습과 관 속 고인의 모습. 애처로움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장례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모습이 다소 이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세상에 나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죽음 만큼은 적어도 그 과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떠나는 이의 마지막 모습에서 느낀 이질감을 회상하며 독자에게 "우리의 죽음",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정서와 예술을 다시 알리려 한다.

많고 많은 노래 중 오직 죽음을 위한 노래가 있다. 반복되는 후렴구와 애달픈 음이 어우러져 죽음을 알리는 슬픈 노래. 이 노래는 현재 "상여소리"라고 불리는 장송곡이다. 상여가마를 이고 가는 상여꾼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알리는 구슬픈 이 노래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우리의 죽음"을 위한 노래로 지역마다 가사와 음에 차이가 있고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고 전해진다. 상여가마와 함께 과거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으나 인력 문제 및 외부의 문화와의 융합으로 이제는 보기 힘든 우리의 장송곡이다.

우리 선조들은 삶과 죽음을 경계 짓지 않았다. 오는 것이 있고 삶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닌 극락의 세계로 가 환생을 거쳐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믿고 있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등장하는 것, 그것이 상여가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숨이 멎어 떠나는 이가 극락세계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오가는 것을 상여가마가 해왔었다. 죽음은 특유의 분위기와 늘 무채색으로 표현되지만 이 상여가마는 예외였다. 화려한 색상과 꽃, 천, 그리고 여러 조각들로 장식되

어 있고 죽음을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을 지녔다. 이젠 영구차가 그 모습을 대신하였지만, 상여가마는 과거 부의 상징이자 죽음을 화려하게 표현한 예술이자 쉽게 볼 수 있었던 존재였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이에게 천사가 내려와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저승사자 이전에 "꼭두"라는 존재가 있다. 꼭두는 "꼭두새벽", "꼭두머리" 등 가장 먼저, 혹은 맨 위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오가는, 그 경계를 뜻하기도 한다. 이 꼭두는 상여가마의 장식으로 고인이 가는 길을 안내하거나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벽사의 역할을 지녔으며 주된 인식은 떠난느 이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려한 색과 역동적인 움직임, 친근한 표정, 혹은 매서운 표정을 한 채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비롯된 예술의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각각의 나라마다 표현되는 죽음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근래에 개봉한 디즈니의 영화 "코코"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다르게 죽음을 흥겹고 즐겁게 표현하였다. 기억이라는 끈으로 묶여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된 것과 달리 우리의 죽음은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으로 표현된다. 흰 삼배와 단색의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무겁고 애처롭기가지 해 멕시코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은 느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도 흥겨운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완전히 찾을 수 없지는 않다. 유일하게 남은 이들이 아닌, 떠나는 이가 가장 화려한 때는 죽음의 가장 마지막 순간, 남은 이들이 배웅하는 순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는 순간 만큼은 그들 못지 않게 역동적이며 화려하고 구슬픈 순간이다.

죽음은 예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예술로 표현될 수는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예로부터 단순한 것과 수숫한 것 속에서 다채로움을 찾아냈던 우리 선조들이 후손에게 남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예술로 표현하고 떠나 "슬픔을 덜어내는 방법이 이러한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을 애도하되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억 속에서 남아있어주기를 바라는, 떠난 이가 아닌 남은 이의 시선으로 본 죽음이 전해져 온다.